

백승준 정치학 강의계획서

“막연할 수 있는 정치학 이론을 구체적으로 정확히 확인하고,
기본이론과 심화이론을 연계한 기출문제 중심의 학습이 진행되는
답안작성에 직접 적용할 수 있는 정치학 강의!”

■ ■ 담 당 백 승 준

- 성균관대학교 철학과 대학원 석·박사통합과정 수료(정치철학 전공)

■ ■ 강의일정 2019년 9/26(목) ~ 10/15(화), 총 17회

■ ■ 시 간 [오후 실강반] ※ 주 2회(1시간, 50점) 복습모의고사가 진행됩니다.

- 1) 시험이 없는 날: 1시 40분 ~ 5시 10분
- 2) 시험이 있는 날: (시험) 1시 ~ 2시 / (강의) 2시 10분 ~ 5시 20분

■ ■ 강의교재 ▶ 교재: 정치학 엡센스(백승준, 실비제공, 예비순환 교재와 동일) + 수업용 특별자료(제공)

■ ■ 강의특징 1. 매일시험 시스템

- 2차 시험의 핵심은 답안작성입니다. 일단 많이 써보셔야 합니다. 그리고 작성한 답안을 강사를 통해 피드백 받으셔야 합니다. 이유는 자명합니다. 수동적으로 학습시간을 투입해도 글쓰기 실력은 늘지 않기 때문입니다. 정식모의고사와 약식테스트를 통해 균형 있게 시행하되, 일대일 강사 피드백을 통해 수험생의 문제점을 같이 협의한 뒤 개인별 맞춤 피드백을 해드립니다.

2. 정치철학을 전공한 강사를 통해 기본기를 튼튼히 쌓아나가는 수업

- 기초부터 차근차근 발전시켜나가는 형식의 수업입니다. 정치현상이 생소하시고 역사나 정치철학, 정치학 연구방법론 등에 취약한 수험자들에게 최적화된 방식으로 진행합니다. 글쓰기가 취약한 분들에게는 수시로 만남의 기회를 통한 피드백과정을 진행합니다.

3. 기출문제 중심의 학습

- 수험에서는 안전한 공부방법이 필요합니다. 수험공부의 우선순위를 잡아 기출문제를 중심으로 강의를 진행합니다.

4. 기본기 향상과 기출문제학습을 위해 만든 엄선자료를 통해 수업이 진행

- 수험을 위해 기획한 엄선자료를 활용하여 학습효과를 극대화 합니다.

진도별 강의내용(진도별 핵심논점)

강의회차	날짜	강의내용
■ 제 1 회	9월 26일(목)	【정치학 오리엔테이션】 정치학에 공부에 대한 전반적인 논의가 이루어집니다. 오리엔테이션 시간입니다. 예비순환이 끝나고 한참의 시간이 흐른 상황이고, 또 예비순환을 거치지 않고 바로 수강하시는 경우도 있을 것입니다. 이에 정치학에 관한 전반적 오리엔테이션을 통해 수험에 적응하는 시간을 갖도록 합니다.
■ 제 2 회	9월 27일(금)	【사회과학 방법론 - 정치학 연구방법론】 1880년 미국의 컬럼비아 대학교(Columbia University)대학원에서 정치학 강의가 하나의 독립된 교과목으로 설정되었는데, 이 시기에 정치학은 철학으로부터 독자적인 학문으로 출발하게 됩니다. 이에 따라 점차로 사회과학 각 분야의 경계가 분명해지게 됩니다. 그리고 정치학의 범위 · 방법 · 목적에 있어서도 근본적인 변화가 일어나게 됩니다. 하나의 학문을 익히는데 가장 중요한건 그 학문만의 접근방법을 연구하는 것입니다. 사회과학의 한 분야로 정교하게 발전하는 정치학을 발달사적 관점에서 연구합니다.
■ 제 3 회	9월 28일(토)	
■ 제 4 회	9월 30일(월)	
■ 제 5 회	10월 1일(화)	최근의 관련 기출문제를 엮어서 수험 정치학의 연관 출제 문제의 맥락을 잡는 수업이 진행됩니다.
■ 제 6 회	10월 2일(수)	【정치철학】 1. 홉스, 로크, 루소의 사회계약론, 국가에 대한 이해 2. 자유주의 개념 및 역사, 평등주의의 개념 및 역사 3. 정치철학의 계보(고대, 근대, 현대) 4. 공화주의 및 현대정치철학 전반 모든 학문의 기초는 철학입니다. 특히 정치학에서 철학의 중요성은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습니다. 좋은 답안지란 철학의 기본기가 녹아 나오며 생겨나는 법입니다. 정치철학을 통해 생각하는 힘을 기르도록 합니다.
■ 제 7 회	10월 3일(목)	운동선수가 기초체력이 없이는 선수생활이 불가능하듯이, 정치철학에 대한 이해가 부족한 상태에서는 학문적 관점을 물론이려니와, 수험적으로도 밀친이 빈약한 상황이 됩니다.
■ 제 8 회	10월 4일(금)	정치철학을 전공한 강사를 통해 수험에서 요구되는 정치철학에 대해 학습합니다.
■ 제 9 회	10월 5일(토)	
■ 제 10 회	10월 7일(월)	【비교정치론】 상대적으로 수험생들이 수월하게 여기는 분야이지만, 꼼꼼한 학습으로 기본을 다져야 하는 부분입니다. 학설의 대립, 제도 발달사나 변천사 등을 다양한 시각에서 분석합니다. 특히 정치철학과의 연계를 통해 단순암기가 아닌 이해지향의 학습을 진행합니다.
■ 제 11 회	10월 8일(화)	
■ 제 12 회	10월 9일(수)	
■ 제 13 회	10월 10일(목)	
■ 제 14 회	10월 11일(금)	
■ 제 15 회	10월 12일(토)	【국제관계학 - 국제정치의 이해】 1. 자유주의, 현실주의, 신현실주의, 구조주의, 구성주의 등에 대한 이해 2. 외교 의사결정론, 협상론 3. 국제경제론 4. 미국학, 중국학, 동아시아학
■ 제 16 회	10월 14일(월)	
■ 제 17 회	10월 15일(화)	5. 민족주의, 다문화주의, 젠더, 개발, 빈곤, 전쟁, 환경 국제정치학의 토대를 완성하고 외교 및 협상에 대한 이해를 심화시킵니다.

※ 강의 일정의 구체적 진도는 진행 중 수험생과 협의하여 변동이 될 수 있습니다.

'You've got to find what you love,' Jobs says

This is the text of the Commencement address by Steve Jobs, CEO of Apple Computer and of Pixar Animation Studios, delivered on June 12, 2005.

When I was 17, I read a quote that went something like: "If you live each day as if it was your last, someday you'll most certainly be right." It made an impression on me, and since then, for the past 33 years, I have looked in the mirror every morning and asked myself: "If today were the last day of my life, would I want to do what I am about to do today?" And whenever the answer has been "No" for too many days in a row, I know I need to change something.

Sometimes life hits you in the head with a brick. Don't lose faith. I'm convinced that the only thing that kept me going was that I loved what I did. You've got to find what you love. And that is as true for your work as it is for your lovers. Your work is going to fill a large part of your life, and the only way to be truly satisfied is to do what you believe is great work. And the only way to do great work is to love what you do. If you haven't found it yet, keep looking. Don't settle. As with all matters of the heart, you'll know when you find it. And, like any great relationship, it just gets better and better as the years roll on. So keep looking until you find it. Don't settle.

Your time is limited, so don't waste it living someone else's life. Don't be trapped by dogma — which is living with the results of other people's thinking. Don't let the noise of others' opinions drown out your own inner voice. And most important, have the courage to follow your heart and intuition. They somehow already know what you truly want to become. Everything else is secondary.

"Stay Hungry. Stay Foolish." It was their farewell message as they signed off. Stay Hungry. Stay Foolish. And I have always wished that for myself. And now, as you graduate to begin anew, I wish that for you.

Stay Hungry. Stay Foolish.

Stanford Report, June 14, 2005